

# 高僧 다시보기

## 체원 스님과 고려말 불교

화엄종은 신라 의상 스님이 우리 나라에 전한 이래 고려 전기까지 불교계를 주도한 대표적 교종이었으나 무신집권기 이후 뚜렷한 행적을 남긴 화엄 종승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화엄 종승을 진작시킨 분이 체원(體元) 스님이다.

스님은 경주 이씨로, 검교장승 이진(1244~1321)의 셋째 아들이며 스님의 바로 손위 형이 고려말의 대 문인 이재현(1244~1321)이다.

스님은 아버지 때에 이르러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전형적인 신승 사대부 집안 출신이다. 형 이재현은 아버지를 따라 천태종 묘연사의 원외국사 정오스님의 문하에 드나들었고 조인규가의 승려인 의선 스님과 교류하였다. 이재현의 딸은 공민왕비 해비인데 공민왕이 즉자 정영원의 비가 되었다. 그의 손자 내유는 출가하여 조계종 광도사의 주지가 되었고, 최호부 관란은 독립한 불교신자였으며 처남인 권중정은 양기도종승이었다. 이진과 권란은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이었으나 본래 불교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러한 불교집안에 태어난 스님은 법호가 목암(木庵) 또는 향여(尙如)라 했으며 각해 대사(覺海大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20세 무렵에 출가하여 승과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한때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승직이 높아지고 유명사찰의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다. 40세 전후인 1320년 이후 화엄종의 결사를 펴던 반룡사 주지를 지낸 바 있고 해

# “만해 스님 ‘조선불교 유신론’ 사회진화론 영향 받았다”

김춘식 씨 만해·의상연구 발표회에서 주장

1913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발표한 <조선불교유신론>은 19~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열린 만해·의상 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김춘식(동국대 강사) 씨는 “<조선불교유신론> 곳곳에 보이는 ‘제도’의 개선과 ‘진보’ ‘진화’에 대한 피력 등에서 근대 초기 지식인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구한말 지식인들은 서구 열강이 부강한 이유를 사회진화론에서 찾았고, 그 결과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인 사회진화론을 근대화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이론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스스로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강론’으로 변형돼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씨는 ‘포교’ 항목을 보면 종교의 포교와 국제사회의 세력관계를 동일시한 만해는 서구 종교의 포교를 ‘세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종교의 세력이 커서 불교를 압도하는 것이 어디 타종교의 죄이겠는가?’는 만해의 질문은 결국 전형적인 ‘진화론’의 생존경쟁과 우승열매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한·중·일 3국의 근대화 정책은 제도와 문물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선불교유신론> 또한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김 씨는 “서구사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불교를 건설한다는 취지는 ‘사회진화론’의 맥락에 그대로 합치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진화, 진보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보이는 반면 평등주의, 구세주의, 세계주의, 평화주의가 강하게 피력되는 점에 비해 보면, 진화론의 약육강식과 우승열매를 대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불교정신에 기반해 그 모순점을 극복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 불교 유적 학술지 ‘불교 고고학’ 창간

위덕대 박물관 매년 12월 펴내

옛 절터 등 불교 유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창간됐다. 위덕대 박물관(관장 김무생)은 지난 달 24일 <불교 고고학> 창간호를 발간했다. 우리 나라의 역사 고고학이 고분, 궁궐, 주거지, 성곽 등에 치우쳐 온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절터, 마애불 등 불교 유적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창간호에는 허홍식(한국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의 ‘명산과 대찰과 신당의 의존과 갈등’ 등 6편의 논문과 경북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보물 54호)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 등을 함께 실었다. 앞으로 매년 12월 발간 예정이다.

<불교 고고학>은 광범위한 역사 고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불교 유적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점에서 학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 유적 연구는 익산 미륵사터나 경주 황룡사터, 갑은사터 등 일부 대규모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와 그 터에 남아 있는 석불, 석탑 등 조형물에 대한 연구가 주류였다. 하지만 유물에 대한 미술사적 접근과 가람배치 중심의 건축사적 이해만으로는 절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의 조원창 책임연구원은 “건립 연대와 중심 활동 연대, 폐사 연대 등 절의 존속 기간, 규모, 불

교사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유적, 유물을 통해 불교 유적을 종합적으로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불교 고고학> 창간호에서 엿볼 수 있다. ‘경주 백운대 마애여래입상은 미완성 대불인가?’란 논문을 실은 박흥국 위덕대 박물관

## 가람·유물 중심 탈피 불교유적 종합적 연구

관학예연구실장은 이제까지 미완성 거불(巨佛)로 학계에 알려져 온 이 마애불이 채색 불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주변에서 수습한 유물을 볼 때 마애불이 있던 곳은 전실을 갖추었던 석굴사원임에 분명하고, 머리와 양쪽 손을 제외한 부분 즉 조각하다가 그만 둔 듯한 부분에 두터운 회칠을 하고 그 위에 채색 장엄한 불상이라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는 빈약해 보이는 마애불의 가슴과 하체 부분이 보완되어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확실하다”고 밝혔다.



◀불교 고고학>창간호 표지

김창호 경주대(문화재학과) 교수는 조 성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던 경주 단석산 신전사 마애불의 조성기 명문을 분석한 결과 인명 표기, 46병려 등으로 볼 때 미륵삼존불상은 통일신라 때, 나머지 불보살들은 7세기 초 조성됐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 ‘단석산 신전사 마애조상에 대하여’를 실었다.

위덕대 박물관 김무생 관장은 “우리 나라 유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나 그에 따른 연구는 다른 유적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불교 고고학도 역사 고고학의 한 분야로서 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술담당 =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a.com

# “한국 선종 뿌리는 마조선”

중국 우민사서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 조사선(祖師禪)의 실질적인 개창자인 마조(馬祖, 709~788)선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한중 학술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강서성불교협회와 우민사, 불교문화사가 지난 달 23~25일 마조 선사가 개창한 홍주종(洪州宗)의 천년 조사도량인 우민사(佑民寺, 옛 홍주 개원사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신라 구산선문과 현 조계종의 뿌리인 마조 선사상을 한중 불교교류사 차원에서 본격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국측 발제자 6명과 중국 각 성(省) 사회과학원 교수와 스님 등 중국측 발표자 23명이 3일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마조 선사와 신라 출신 무상선사 및 신라 구산선문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월스님(중국대 선학과 겸임교수)은 “마조의 한중 선불교사에 끼친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신라의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들의 절대다수가 마조의 제자들에게서 법을 받고 귀국했음을 볼 때, 한국불교 선종의 기초와 성격이 마조선의 영향권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라말 고려초의 한국 선불교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구산선문(丘山禪門) 가운데 수미산문(須彌山門)을 제외한 8개 산문의 개산조가 마조의 제자들로부터 법을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 진월스님은 “현 조계종은 혜능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조가 완성한 조사선을 수용한 이래 그 가풍을 지켜 오고 있다”며 한국불교와 마조선과의 법연을 강조했다.

이러한 진성구 증광대 교수는 ‘마조와 한국불교’라는 논문을 통해 “신라의 스님들이 유독 마조 문화에 많이 입문한 까닭은 마조선사가 신라출신의 정종종(淨衆宗) 주종였던 무상(無相, 684~762, 즉 김화상(金和尚)의 제자 또는 사제(師弟)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들은 입당 전에 모두 교화, 특히 화엄을 공부했기에 화엄사상과 통하는 마조의 홍주종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충북대 교수도 ‘마조의 홍주종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마조가 개창한 홍주종의 특징은 중도실상의 무심과 회두참구의 본원자각을 회통시킨 것’이라며 “이런 회통의 이면에는 신라의 무상선사로부터 청정여래선의 의미를 계승하고, 남양회암 선사로부터 돈오돈수론의 법연을 함께 이어받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處)했다. 문하에서 함께 공부한 무상선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a.com



◀충북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충북 유형문화재 3호).

#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 ‘보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호인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을 보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를 관보에 예고했다.

고려 중기 양식을 보이는 이 탑은 일반적인 가람배치와는 달리 대웅전 앞이 아니라 사역의 북쪽 낮은 봉우리에 서 있는데,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산전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전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석탑 중 유일하게 쌍탑이다.

또 자연암반 위에 건립됐는데도 2층 기단인 점, 산전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다른 탑이 2~3m 높이인데 비해 둘레가 4.3m 서탑이 4.1m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 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 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I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II 아미타불의 본원 III 염불의 공덕 IV 칭명염불 수행법 V 관상염불 수행법 VI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저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시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扉를 틈틈이 보십시오. 기꺼이 끊어지지 않고 행복은 언제나 ‘나’의 맘에 맡겨드립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십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기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